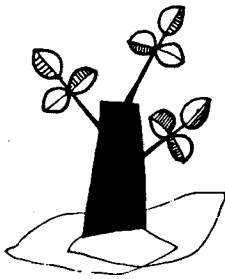


治山治水 始源考



임 경 빈

아래 설명하는 이유로서 治山治水란 말은 결국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에 울창한 숲을 조성해서 그곳으로부터 유출되는 온갖 효과 가치를 가장 바람직스러운 상태에 두자는 것이다. 그와같이 할 때 가장 두드러진 효용은 사시사철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이다. 지난날 우리는 농경사회를 건설해서 온갖 문화를 창조해 내었고 농경은 삶을 지탱시키는 모든 것이 있다. 이때 농경을 위해서 물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었고 보면 물은 곧 인류생존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治山治水만 되면 그곳에서 인간은 정착해서 삶을 營爲할 수 있었다. 물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산이라면 그곳에는 각종의 야생동물이 우글거릴 수 있는 것이며 쓸만한 목재가 듬뿍 담겨질 수 있다. 따라서 治國의 要諦는 治山治水에 있다는 옛말은 어디까지나 변치 않을 原理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어느때부터 治山治水의 積極思考가 싹튼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文字가 없었던 先史시대부터 人類가 이것을 문제시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도리가 없으나 단군왕검때 治山治水法이 고안되었다는 古典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센세이션 같은 것을 던져준다. 그것이 어디까지 또 어느정도로 사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금년(1994년)이 단기 4327년이고 보면 약 4300년쯤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治山治水法은 매우 발달한 상태이어서 이웃나라 중국에까지 그기술을 전수시킨마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시대가 어떠한 때였기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단군시대를 인

류역사의 큰 물줄기안에 象嵌시켜 내다볼
필요를 느껴 다음표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

나라 간행물을 참고한 것이다.

구석기문화	B. C. 70~3 만	無土器時代, 식량채집 全體인류역사의 99%를 차지함.
중석기문화	B. C. 1만	활과 화살 발명
	B. C. 6000 (전기)	빗살무늬토기, 磨製石器, 움집생활
	B. C. 3500 (중기)	전형적인 V자형 빗살무늬토기. 북방인들이 과상 적으로 들어옴
	B. C. 2333	단군왕검 고조선 건국, 중국堯임금 25년
	B. C. 2000 (후기)	농경시작, 삼림개발, 만주지역 일부에서는 청동 기문화 시작
청동기문화	B. C. 1000	無文토기, 청동기 문화인이 한반도로 들어와 한민 족의 주류를 이룬다.
철기문화	B. C. 700	도끼, 칼, 낫, 창, 가래, 보습 등을 철로 만든다.

표의 내용을 보면 단군建國은 신석기시
대의 후기쯤에 가깝다. 중국 요임금 25년
에 해당하는데 요순시대가 전설적내용을 다
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군시대의 개국의
일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처럼 神의 세
계에 고리를 걸고 異蹟을 가미하면서 줄거
리를 풀어나갔다는 것은 人類心理의 당연
한 흐름같이 생각된다. 단군은 하늘나라에
서 내려온 神의 아들이고 보면 天地의 각종
현상을神通스럽게 내다 볼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석기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土
器를 만들어 썼고 또 얼마 안가서 農耕이
시작되었으므로 단군건국때에는 상당한 문
명수준이 神壇樹 주변에 散在해 있었을 것
이 아닌가.

史記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夏后氏 禹는 곧(鯀)의 아들이다. 곧이

洪水를 막는 治水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舜
임금이 곧대신에 그의 아들 禹로 하여금 治
水를 맡도록 했다. 그랬더니 그는 노신초사
하면서 8년동안이나 집에는 오지 않고 현
장에서 일을 했다. 육지에서는 수레(車)를
타고 물길에서는 배(船)를 타고 진흙길에서는
썰매(橇 썰매교)를 타고 산에서는 연(權
요사이의 등산화 비슷한 것이라 한다. 필자
는 그내용을 모르고 있다)을 이용해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治水에 성공했
으므로 舜임금의 추천을 받고 국민의 추대
를 받아 水德으로 왕이 되었다. 곧 禹王이
다. 禹王은 天地의 神에 제사를 드리고 諸
侯를 塗山에서 만났다.』

이때 塗山이란 地名이 우리의 관심사로
된다. 塗山은 중국 安徽省안에 있는 산이
름인데 이곳에 塗山氏 일족이 살고 있었던
모양으로 禹王은 도산씨를 취하여 妃로 삼

있다하니 곧 禹王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神壇實記(김교현 著)란 책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 나라사람들이 神人을 추대해서 임검(壬儉)으로 삼으니 곧 檀君이라. 나라 이름을 檀이라 했다. 비서잡(匪西岬) 하백녀(河伯女)를 취하여 后로 삼고 아들 부루(扶婁)를 낳다. 마침 洪水를 당하게되자 팽우(彭虞)를 시켜 산을 다스리게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신지(神誌)로 하여금 글자와 문서를 맡아 보도록 했으며 고시(高矢)는 농사일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太子인 부루를 보내어 중국 塗山에서 夏의 禹王을 만나게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國際外交의 시초이다.』

여기에도 도산의 모임이 지적되고 있다. 塗山會議에서는 부루가 禹王에게 五行治水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禹王이 舜임금의 명을 받아서 당시 中國에 계속되는 몇해동안의 洪水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治水의 妙法을 몰라서 선각자 부루를 모셔간 것으로 생각된다. 문장에 보면 당시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홍수가 있었고 이때 『팽우』가 治水를 성공시키고 있다. 그래서 단군 때 우리나라의 治水技術은 세계에 冠絶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五行治水法을 가르친 모양인데 필자는 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없다. 五行이라하면 世上의 현상들이 因果관계위에 서서 놓고 기르고 소멸해가는 내용을 金木水火土의 다섯가지 元素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五行相生이라던가 五行相剋이란 그내용이 아니겠는가.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金을 만들고 金은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만든다는 윤회가 있는데 이것은 현

대과학으로 生態系의 개념 비슷한것 같다. 生態系에 있어서는 生産者, 消費者, 分解者, 그리고 無機物이 돌고 돌아간다는 건데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단군의 아들 夫婁와 夏나라 禹王이 서로 도산에서 만나게 되는 사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즉 堯임금때 중국에는 9년홍수가 저서 夏禹가 治水를 담당했는데 8년동안이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걱정하면서 南嶽 衡山에 가서 흰말을 잡아 하늘에 제사 드리고 성공을 빌었다. 그랬더니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 스스로 玄夷(조선의 별칭)의 창수사자(蒼水使者)라 하면서 禹에게 말하기를 『九山 동남쪽에 도산이란 산이 있고 그곳에 神書가 있으니 체계(마음과 몸을 깨닫기 함)하고 가서 그것을 찾아 읽어보라』라고 했다. 長는 그말에 따라서 가서 神書を 얻어 그안에 설명되어 있는 五行通水の 이치를 알아 냈고 더디어 治水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읽을 수 있다. 즉 단군왕검께서 중국의 水災를 알고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의 아들 부루로 하여금 滄水使者로 해서 塗山에 보내어 夏禹를 만나도록 했고 三神五帝教의 한부분인 五行說을 전하고 治水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런 저런 옛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통하고 있어서 이것은 事實일 것이라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塗山神書의 本文은 그렇게 긴것은 아니나 그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漢文字로 되어 있으니 이미 고조선시대에 한문자가 있었다고 한 기록도 읽을 수 있으나 상

古의 일이라 추측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자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기원전 약 2천3백년부터라고 했다. 이것은 도자기 조각에 쓰여진 갑골문자인데 중국 산둥성에서 발견되어 학계를 놀라게 했고 이때까지의 공인 년대보다 900년 더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단군왕검시대쯤 이미 중국에는 문자가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國語 史記 皆云 禹會諸侯於會稽 會稽亦
有塗山

국어와 사기에 모두 쓰기를 禹가 회계에서 제후를 만나다. 회계는 도산에 있다. 그래서 도산회의를 인정하는 글들이 된다.

五行說에 보면 나무(木)는 五行의 시작이고 물(水)은 五行의 끝이라 했으며 흙(土)은 五行의 중간이라 했다. 五行의 순서는 곧 하늘의 차례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즉 나무가 시작이고 물이 끝이라면 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山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풀이이다.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合理的인 治水의 방법이다. 이러한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수가 없다.

禹王이 治水를 하는데 지방 곳곳에 못(담)을 만들고 진흙땅을 지나는데 썰매를 이용했다하니 治水의 土木工事도 했다는 내용이지만 그는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것이 五行治水法이라면 말이다. 禹王의 父가 흙을 쌓아서 홍수를 막았다는 기록은 博物誌 卷十에 나타나고 있다.

鯀布土取帝之息壤 以填洪水

즉 우왕의 아버지 곤이 하늘나라의 흙을 취해서 홍수를 막았다는 것이다. 나무도 심

고 현실적인 방비대책도 했을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흥미있는 것은 곤이 하늘나라의 흙을 훔쳐다(?) 인간을 동정해서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사정으로 본다면 곤은 배반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

초기 인류를 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神들의 배반(?)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 天神 桓因은 그의 아들 桓雄을 下界에 보내 弘益人間的 사상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때 桓雄은 天上의 곡물의 종자를 가져다 地上的 곡물재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개국 신화에 있어서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흥미롭다. 이런 뜻에서 桓雄을 文化英雄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4000여 년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중국에 있어서는 큰 홍수가 있었다는데 이는 한편으로 놀라움이 없지 않다. 즉 그와같은 예전에는 산에 숲이 우거질대로 우거져 있었겠는데 어떻게 해서 홍수가 났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의 기상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三國史記에는 기상이변등에 대한 기재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을 추려본다.

〈신라본기〉

내물이사금(奈物尼師今) 11년 큰물이 나서 13군데의 산이 무너졌다.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8년 큰물이 나서 17군데의 산이 무너졌다.

성덕왕(聖德王) 19년 큰물이 나서 13군데의 산이 무너졌다.

원성왕(元聖王) 큰물이 나서 산이 무너졌다.

〈고구려본기〉

모본왕(慕本王) 원년, 큰물이 나서 20여 곳의 산이 무너졌다.

〈백제본기〉

구수왕(仇首王) 8년, 큰물이 나서 산 40여곳이 무너졌다.

이처럼 큰비가 와서 때때로 산이 무너진 모양이다. 이때마다 治山治水가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홍수를 조절하고 관계용수를 저축하기 위하여서는 제방이 수축되었는데 그러한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신라본기에 보면 일성(逸聖) 이사금 11년에 습을 내려 각 州·郡의 제방을 수축시켰고 흘해(訖解) 이사금 21년에는 전복 김제에 벽골지를 만들었다. 법흥왕 18년에도 有司에 명해서 제방을 수리하게 했고 눌지(訥祗) 마립간 13년에는 시제(矢堤)를 축조했다. 헌덕왕 2년에는 使者를 파견하여 제방을 수축하게 했다. 이처럼 貯水池의 관리에도 신경을 쓴

자치가 엿보인다.

맺는말

근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치산치수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제 2차대전의 끝난뒤 우리나라 산은 많이 벗어진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시내는 乾川으로 변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산이 우거지면 그 반응으로서 溪流가 정비되고 流量이 恒常水準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군왕검의 조선건국당시에는 治山治水의 秘方을 중국에 가르쳐 주기도 했다.

현재 治山治水가 잘 된 나라는 모두 富強國이다. 이에 例外가 없다. 林業經營에 뛰어난 머리를 가졌던 우리의 開國神들이 훌륭하였다고 느껴진다. 治山治水를 잘하면 좋은 治國이 될 수 있다. 치산치수 그것은 자연을 건강한 상태로 두자는 가장 현명한 처방이다.

독립가의 자격 요건

독립가종류	소유산립	조립면적	비 고
모 범	300ha 이상	100ha 이상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야 함. ○()내는 유실수 조립의 경우임
범 인	500 "	300 "	
우 수	100 "	50(20) "	
자 영	50 "	20(10) "	